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별 산업입지 비교우위에 관한 연구

Comparing the Locational Advantage for Developing Overseas Industrial Park

장인석¹ · 성장환² · 정연우³

In-Seok Chang¹, Jang-Hwan Seong² and Yeun-Woo Jeong³

(Received December 10, 2012 / Revised May 3, 2013 / Accepted May 30, 2013)

요 약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비교우위 결과를 분석 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2010년 1/4분기 현재,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모두 128개국이며, 이 중 '80년~2010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분석대상국을 선정하였다. 128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보다 낮고, 2007년~2010년 동안 현지 법인 신고건수가 10건 이상인 38개 국가를 선별하였고, 이 중 2008~2009년 기준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815달러/월)의 10개 국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28개국을 주요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국가별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크게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인구규모,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세부지표를 선정 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넷째,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한 바,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 부문의 평가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미개발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전반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해외산업단지, 평가지표,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ABSTRACT

The indices to choose the object countries for developing overseas industrial park were developed and applied in this paper. The results are showing as follows. First, the Korean enterprises are branched out into total 128 countries as of the first quarter of 2010, and the 13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Vietnam, Japan, and Hongkong shows the majority of precedence 20 countries among the reported during 1980-2010. Second, the 3 steps of selecting the principal region to branch out, establishing assessment indices and criteria, and choosing strategical target counties were developed to choose the countries for developing overseas industrial park.

The 38 of 128 countries were selected where the GDP per capita is lower than Korea, and the local reports of incorporation during 2007-2010 are more than 10 times. Then, the 10 countries were excluded where the minimum wages during 2008-2009 are similar to Korean (\$815/month). Consequently, the 28 countries including China, Vietnam, and Cambodia etc. were selected as the major target regions. Third, the indices to choose countries for developing overseas industrial park are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investment condition, labor market flexibility, potential market demand, population, changing rate of the reported number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detailed indices for each category were selected, then the weight were given with the consideration of importance. Finally, Indonesia, Mongolia, and Uzbekistan were selected as the strategical target counties where acquire the high score i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investment condition, relatively undeveloped, and friendly to Korea.

Key words: Oversea Industrial Parks, Indices, Investment Condition, Labor Market Flexibility, Potential Market Demand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의 입지선택과 생산기반시설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구

조는 산업입지수요 분석과 연계한 지역개발의 중요한 이슈이다.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을 위한 투자패턴은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존재하고, 특히 동일산업들의 집적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기업들의 생산설비

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주저자: changis@lh.or.kr)

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교신저자: ywjeong@lh.or.kr)

를 포함한 생산기지이전 결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생산입지를 탐색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내 생산여건이 악화될수록 외국으로의 진출규모가 커지고 진출시기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제조업 특히 섬유, 봉제, 신발 등 수출주도형의 노동집약적 업종들은 국내의 고임금, 높은 지가,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탈피하고자 보다 저렴한 산업입지를 찾아 매년 해외로 진출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종은 대부분 중소기업 내지 영세기업이어서 대기업과는 달리 해외진출에 대한 입지탐색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렵게 결정한 해외진출이 동종업종의 집적에 따른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를 이루지 못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첫째, 장기적·전략적 진출을 모색하지 못하고, 개별기업 위주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기업 차원의 입지선택과정에서 업종 특성에 적합한 생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탐색하지 못했으며, 국가차원의 정보제공이 미흡했다는 점, 셋째, 단일기업이 해외진출에 성공했다 해도 동종업종의 지속적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집적공간을 형성하지 못해 해외진출에 따른 범국가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¹⁾, 본 연구는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국내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기에 정확한 해외진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으며,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위한 전용공단 등 수출주도형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생산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입지마련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및 안정적인 산업입지 제공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적 요소로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국가별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분석대상국 선정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비교우위 평가지표와 기준을 설정하여 주요 분석대상국가에 적용하였다.

1.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연구들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산업입지계수를 이용한 추정이나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산업의 집적이 입지결정과 기업규모 또는 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왔다. 이와는 달리 해외연구들은 진출기업의 자국내 입지선택요인이 해외진출과정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역장벽 여부에 의해 입지가 선택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산업 및 기업의 입지선택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역적 집중패턴과 미시적 관점에서의 기업의 입지선택 패턴으로 구분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의 지역적 패턴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산업연구원(2003)의 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자료와 사업체 자료를 통해 산업특화, 경쟁지표 등을 작성하고, 지역내 산업집중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산업의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동종산업이 집중되고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의 지역적 집중은 동종유사산업의 사업체들이 집중되고 사업체들의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유사산업이 집중되는 이중적 구조가 발생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규기업은 동종 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크고, 시장규모 역시 입지의 주요 결정요인을 유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집적이 생산성에 미치는 한쪽 방향으로의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오히려 산업집적에 따른 생산성이 입지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집적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분석단위를 기업단위까지 확장하여 기업의 입지선택요소와 그 특징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정의철 등(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논문에서는 생산요소의 공유, 지식의 확산정도, 노동시장의 인력공급 풀(Pool) 등이 기업의 공간적 집적에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증명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로 기업의 생산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상 인력공급의 용이함과 생산요소의 공유가능성은 기업집중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또한 신규기업의 집적패턴 과정에서는 인력공급 용이성을 포함하여 에너지 비용의 절감가능성도 중요한 선택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주제 및 범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산업단지 조성의 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입지선택요인을 특성화하고 지표화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입지선택요인을 해외의 입지특성으로 투영시키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내연구와는 달리 해외연구들은 해외투자기업의 진출국에서의 입지결정 문제를 실증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이 가운데 Anderson et al.(2008)의 연구결과

1) 김경애와 김재범(2010), pp.103~105.

2) 본 연구에서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지만 Head and Mayor(2004), Caves(2006), Glickman and Woodward(2008) 등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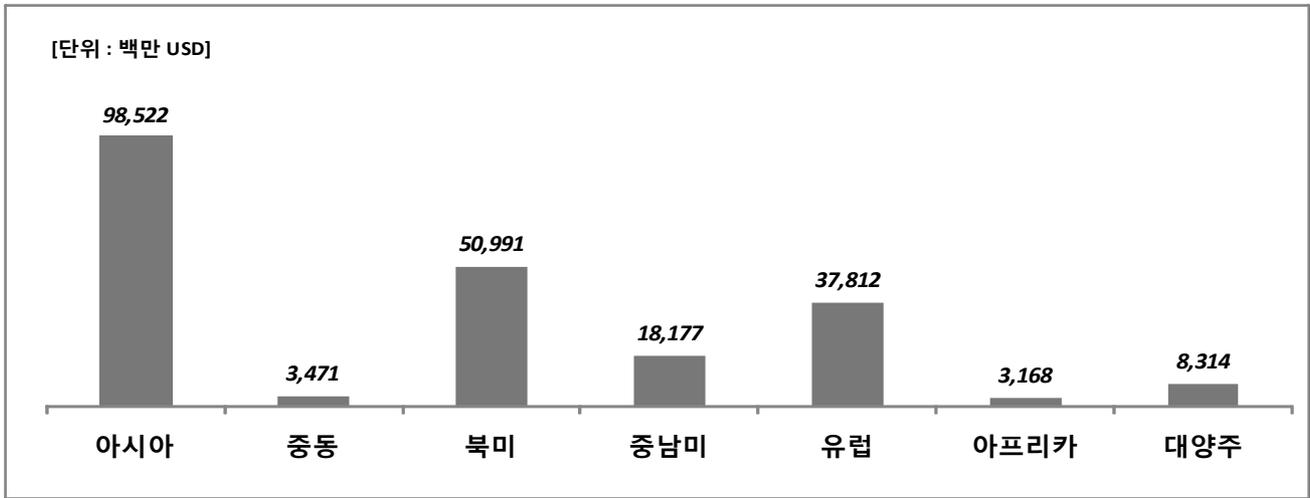


그림 1. 지역별 해외투자금액(1980년~2013년 1/4분기 현재 누적금액)
출처: 해외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각 년도 자료 재구성

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생산활동의 일환으로서 외국에 설립되는 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문제는 투자유치국내 자국기업의 입지선택과는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많은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이 입지하려는 국가의 제도, 문화, 언어측면에서 교역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은 단순한 입지선택 조건이외에 기 진출한 동일국적 기업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탐색비용의 크기가 오히려 입지선택요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동향에 근거한 산업입지 결정과정과 합리적 국가선정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결과와 제시된 선정지표는 해외진출기업의 입지선택 동향과 해외산업입지에서 집적효과 창출을 위한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

2.1 지역별 해외진출 현황

지난 30년 동안(1980년~2013년 1/4분기)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은 신고건수로 약 12만2천 건이며, 해외진출이 본격화된 90년도 중반부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270% 증가해 왔다(표 1).

지역별 신고건수 현황을 누적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해외투자 신고건수가 전체의 약 6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북미 지역이 약 19%로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으로 현지법인 신고건수 증가율만 보면 중동과 중남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다음으로 북미와 아시아 지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표 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건)

지역	신고건수				누적 (’80~’13년 1/4)
	’80~’10	’11	’12	’13 1/4	
합계	121,602 (100)	7,861 (100)	7,534 (100)	1,837 (100.0)	138,834 (100)
아시아	83,464 (68.6)	5,370 (68.3)	5,113 (67.9)	1,271 (69.2)	95,218 (68.6)
중동	1,241 (1.0)	163 (2.1)	124 (1.6)	34 (1.9)	1,562 (1.1)
북미	23,124 (19.0)	1,229 (15.6)	1,258 (16.7)	289 (15.7)	25,900 (18.7)
중남미	3,663 (3.0)	357 (4.5)	352 (4.7)	81 (4.4)	4,453 (3.2)
유럽	6,243 (5.1)	493 (6.3)	438 (5.8)	115 (6.3)	7,289 (5.3)
아프리카	822 (0.7)	46 (0.6)	82 (1.1)	10 (0.5)	960 (0.7)
대양주	3,045 (2.7)	203 (2.6)	167 (2.2)	37 (2.0)	3,452 (2.5)

주: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해외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각 년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 투자금액 기준으로 11만 7천여건의 진출 규모 대비 투자금액은 누적기준 약 2,145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투자금액의 45%가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다음으로 북미지역 22.7%, 유럽 17.4% 수준이다.

2.2 국가별 진출현황

2013년 1/4분기 현재,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모두 168개국이며, 이 중 1980년~2013년 1/4분기 동안의 총 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을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시아 지

표 2.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건)

국가별 해외투자현황 : 주요 진출지역

순위	국가	지역	신고건수				평균증가건수	
			'96	'07	'08	'80~'13	'96~'07	'08~'13
1	중국	아시아	1,519	4,585	3,257	51,529	279	-1,328
2	미국	북미	446	2,147	1,739	21,711	155	-408
3	베트남	아시아	90	832	815	6,991	67	-17
4	일본	아시아	37	459	375	4,335	38	-84
5	홍콩	아시아	66	425	519	4,223	33	94
6	인도네시아	아시아	100	293	396	4,404	18	103
7	필리핀	아시아	141	295	363	3,284	14	68
8	캄보디아	아시아	26	376	486	4,335	32	110
9	태국	아시아	61	163	145	1,439	9	-18
10	말레이시아	아시아	40	144	123	1,151	9	-21
11	인도	아시아	34	204	215	1,640	15	11
12	호주	대양주	47	115	134	1,211	6	19
13	싱가포르	아시아	33	153	151	1,704	11	-2
14	캐나다	북미	17	111	82	897	9	-29
15	러시아	유럽	41	99	120	925	5	21
16	독일	유럽	26	59	58	996	3	-1
17	몽골	아시아	2	101	189	785	9	88
18	영국	유럽	36	44	31	669	1	-13
19	대만	아시아	17	59	55	480	4	-4
20	뉴질랜드	대양주	13	34	27	527	2	-7

주: 1980~2013년 1/4분기 동안 총 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
출처: 해외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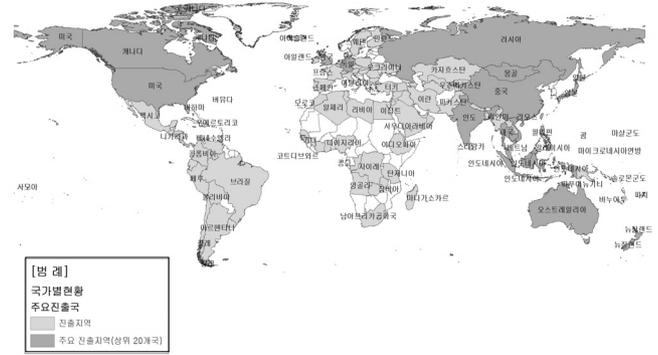


그림 2. 주요 진출지역(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

3. 비교우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분석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였다. 미개척 유망 지역을 파악하는 측면에서는 최근 해외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며, 이에 최근 3년간(2007년~2010년)의 현지법인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주요 진출국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의 시장개척 용이성 및 안정적인 생산활동 측면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신고건수 상위 국가를 선별하고, 이들 중 월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를 제외하여 선정한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누적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상위 국가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능성과 직접경제 창출을 위한 현지 국가내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다 저렴한 임금 및 지가 등 비용절감요인이 낮은 국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4분기 현재, 우리 기업이 진출한 168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보다 낮은 91개 국가를 선별하고, 이 가운데 2007년~2010년 동안 현지법인 신고건수가 10건 이상이면서 특히 제조업 분야의 신고건수가 5건 이상인 국가를 선별하였다.⁴⁾ 분석결과 총 38개 국가가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아시아 국가가 1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남미 9개국, 유럽 6개국, 중동과 아프

역에 속한 국가가 13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럽 3개국, 북미 2개국, 대양주 2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가별 해외투자 신고건수의 연평균 증가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279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155건), 베트남(67건), 일본(38건), 홍콩(33건), 캄보디아(32건), 인도네시아(18건)의 증가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중국(-1,328건), 미국(-408건), 일본(-84건)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신고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은 약 4만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했으나, 2005년 들어와 우리기업의 철수규모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³⁾. 반면, 캄보디아(110건), 인도네시아(103건), 홍콩(94건), 몽골(88건), 필리핀(68건) 등은 전년대비 신고건수가 증가하였다.

3)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나, 2005년 중국의 노동법 개정, 외국투자기업의 진입업종 규제 등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철수한 국가임.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자료는 진출국가 및 진출규모는 비교적 자세히 제공되고 있는 반면 철수현황은 제공되지 못해 자료활용의 한계점이 있음.

4) 대상국가 선정시 현지법인 신고건수를 2013년 1/4분기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각 국가들의 최저임금 자료가 연도별로 일치하지 않고 2010년 자료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0년 통계자료를 적용하였음.

표 3. 분석대상 국가별 주요 현황

순위	국가	지역	현지법인 신고건수 ¹⁾ (*07~'10)		1인당 GDP (USD) ²⁾	최저임금 (USD/월) ³⁾
			전체	제조업		
1	중국	아시아	10,478	7,174	3,678	204
2	베트남	아시아	2,458	1,563	1,060	102
3	캄보디아	아시아	1,100	98	775	156
4	인도네시아	아시아	1,060	467	2,329	142
5	필리핀	아시아	936	159	1,746	424
6	인도	아시아	583	405	1,031	113
7	몽골	아시아	437	44	1,560	35 ⁴⁾
8	태국	아시아	426	220	3,940	304
9	러시아	유럽	408	121	8,694	70
10	말레이시아	아시아	391	102	6,897	46 ⁴⁾
11	카자흐스탄	아시아	235	26	7,019	138
12	멕시코	중남미	155	109	8,135	202
13	우즈베키스탄	아시아	154	53	1,176	25
14	브라질	중남미	121	65	8,220	267
15	키르기즈	아시아	98	9	872	26
16	방글라데시	아시아	81	55	559	69
17	라오스	아시아	73	9	897	65
18	스리랑카	아시아	37	12	2,041	122
19	페루	중남미	29	8	4,377	326
20	루마니아	유럽	25	15	7,503	237
21	파키스탄	아시아	22	10	1,017	118
22	칠레	중남미	19	9	8,853	377
23	미얀마	아시아	19	7	442	25
24	가나	아프리카	13	5	639	115
25	이란	중동	11	11	4,477	268
26	과테말라	중남미	11	5	2,602	335
27	콜롬비아	중남미	10	7	4,662	389
28	이집트	아프리카	10	5	2,450	174

출처: 1) 해외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International Monetary Fund)
 3) Global Wage Report 2008-2009(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4) Working Conditions Laws 2006-2007(OECD)

리카 각각 2개국, 대양주 1개국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38개 국가 중 2008~2009년 기준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815달러/월)의 10개 국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28개국이 분석대상국가로 선정되었다.

4. 비교우위 평가지표 설정 및 적용

4.1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생산활동시 입지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전

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기업의 입지결정에 대해 적용 가능한 논리는 국제무역이론에서 강조하는 전통적인 이론으로서 헉셔-오린 정리에 의한 부존자원의 불평등한 분포에 따른 공간적 이동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Fujita와 Mori(2005)의 연구를 보면,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공간적 집중은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를 창출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비용절감과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므로써 기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의 입지선택에 대한 공간적 집중과 경제성 창출은 이미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 다시 새로운 기업이 입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자기확장적(self-reinforcing)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지결정에 대한 Kang과 Lee(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진출을 위한 입지선정 요인은 지역의 시장잠재력을 포함한 수요조건,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여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조건부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입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그 대상국가가 중국에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중국 진출이 가장 많았던 점을 비추어 보면 본 연구에 적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⁵⁾.

4.2 평가지표 설정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국내 생산요소가격의 상승(특히 임금상승), 국제수지 흑자의 시현 등 국내의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산업단지 조성의 일차적인 목적이 기존에 해외투자가 이루어졌던 기업이나 향후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산업입지 제공이므로, 해외 생산활동을 위한 입지 결정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던 기업들의 해외투자 입지결정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여건 및 시장잠재력에 기초한 수요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것이다⁶⁾. 즉, 생산의 국제적 분할(생산네트워크로서의 생산기지) 및 가공무역(중간재의 수입의존과 최종재의 제3국가 수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업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건이 좋고, 저임금의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며, 진출기업의 1차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 이와 유사한 주제로 Chang과 Park(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시 입지결정에는 집적에 따른 외부효과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집적의 외부성은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간에 보다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이기동과 황석준(2010: 168~169) 재인용).

6) 김정환(2012), pp.1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크게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4.2.1 투자유인정책 부문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해당국가의 투자유인정책은 외국기업 우대정책으로서 안정적인 산업입지 확보와 조세혜택, 외국기업의 이익을 자국으로 환입할 수 있는 관세제도 등이 해당된다. 외국기업 투자유인정책 가운데 해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국가에서 사업을 준비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기업설립 비용⁷⁾ 및 소요시간, 둘째, 외국투자기업이 자국내 생산활동을 영위할 시 세제혜택 및 이익금 송금 규제 제한 수준, 셋째 향후 기업철수시 외국기업 청산절차의 용이성(노무, 세무, 사회보험 등 청산절차 용이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2.2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외 기업들이 자국생산기지를 이탈하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이유로는 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임금상승과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산업단지 조성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을 통한 집적효과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대상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로 진출대상국가의 법정 최저임금수준,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과 질적 수준, 종신고용제 도입 등 해고요건을 설정하고자 하며, 이러한 지표를 통해 진출대상국의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는지 또는 유연한지 판단하고자 한다.

4.2.3 시장수요 잠재력 부문

시장수요 잠재력은 해외진출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구축과 중간생산물 또는 최종생산물의 판매기지로서 역할 및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평가기준이다. 시장수요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제품소비 및 판매처로서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을 나타내는 인구 및 경제사회 지표와 원료조달 및 기업의 다양한 수익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 자국의 부존자원 보유 수준과 사회간접자본 수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선정지표 이외 진출대상국가 선정시 대상국가의 인문·경제·사회 등의 보조지표로서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대외 무역의존도 및 수출입 현황, 국가의 산업구조(1, 2, 3차 산업비중) 등을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

요 잠재력 부문의 평가지표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투자유인정책 부문의 5개 세부지표는 기업설립시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행정적 규제 포함), 이익금 본국 송금시 처리기간 및 적용세율, 기업청산시 소요비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세부지표는 해외진출기업의 입지매력도를 측정하는 일차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해외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이후 분양 또는 임대가능성 및 입주기업의 수익성 확보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둘째,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의 3개 세부지표는 법정 최저임금수준, 노동자 채용 및 해고요건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세부지표는 해외진출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후 안정적인 생산활동 가능여부를 탐색하는 요소로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해고가 얼마나 유연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셋째, 시장수요 잠재력 부문의 5개 세부지표는 현지 국가의 경제활동인구비율,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국가 수입규모, 대외무역의존도 및 2차 산업 비중 등을 고려하였다. 이들 지표의 특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생산한 재화의 수요 가능성 및 산업집적효과의 발생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이다.

이상의 3가지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는 단일 기업측면에서 해외진출시 고려할 수 있는 투자매력도로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실제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수의 기업을 단지내

표 4. 비교우위 평가지표

부문	평가지표	내용
투자유인정책	기업설립비용(자본금 대비)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확보 탐색요소 ·산업단지 조성 이후 분양 또는 임대가능성 및 입주기업의 수익성 확보측면
	기업설립시 최소 소요기간	
	이익금 본국 송금시 처리기간	
	이익금 본국 송금시 적용세율	
노동시장유연성	기업청산시 소요비용(자본금 대비)	·산업단지 조성이후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체의 향후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분양률 제고방안 수립 대안 마련
	법정 최저임금수준	
	노동자 채용요건(채용지수)	
시장수요잠재력	노동자 해고요건(해고지수)	·산업단지 입지수요 확대 탐색 ·입주기업의 생산거점 역할 및 중간·최종생산물의 수요가능성 ·현지국가와의 제조업 연계 및 산업집적효과 발생가능성 탐색
	경제활동인구비율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국가 수입규모	
인구규모	대외무역의존도	·현지국가와의 제조업 연계 및 산업집적효과 발생가능성 탐색
	2차 산업 비중	
제조업신고건수변화율	해당 국가의 총인구	
	최근 3년간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7)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외국인(기업)의 토지 소유 또는 임대가능 여부와 적정 토지가격 수준이라 할 수 있음.

표 5. 비교우위 평가기준

부문	가중치	평가지표	평가기준	세부 가중치
투자 유인 정책	1.5	기업 설립비용(자본금 대비)	0%(100)~140%(0)	0.1
		기업설립시 최소 소요기간	0일(100)~120일(0)	0.3
		이익금 본국 송금시 처리기간	0시간(100)~2,600시간(0)	0.2
		이익금 본국 송금시 적용세율	0%(100)~100%(0)	0.3
		기업청산시 소요비용(자본금 대비)	0%(100)~40%(0)	0.1
노동시장 유연성	0.9	법정 최저임금수준	25\$(100)~425\$(0)	0.5
		노동자 채용지수(0(우수)~100(불량))	0(100)~80(0)	0.2
		노동자 해고지수 (0(우수)~100(불량))	0(100)~70(0)	0.3
시장수요 잠재력	0.6	경제활동인구비율	60%(100)~30%(0)	0.1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10%(100)~0%(0)	0.2
		국가 수입규모	10,056억\$(100)~0\$(0)	0.2
		대외무역의존도((수출액+수입액)/GDP)	155%(100)~0%(0)	0.3
		2차 산업 비중	50%(100)~20%(0)	0.2
인구규모	1.0	해당 국가의 총인구(log(총인구))	10(100)~6(0)	1.0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1.0	최근 3년간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180%(100)~-100%(0)	1.0

에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수의 기업 진출시 요구되는 충분한 노동력 확보 가능성 및 우리기업의 최근 진출동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조지표로서 해당 국가의 인구규모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진출건수 변화율을 선정하였다.

4.3 평가기준 및 가중치 부여⁸⁾

분석대상국에 대한 비교우위 분석을 위해 우선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15개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은 평가지표에 대한 원자료를 구축하고, 이들 원자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5개 부문 및 평가지표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였다(표 5). 우선 투자 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인구규모,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등 5개 부문간 비교우위를 살펴보면, 기존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입주기업의 수요확보 가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출대상국 선정에 있어 투

자유인정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에 50%의 가중치를 더 부여하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시장수요 잠재력 부문은 상호 보완적인 입지속성으로 판단하여 각각 10%와 40%씩 감하였다. 다음으로 부문별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는 투자 유인정책 부문의 5개 지표에 대해서는 10%~30% 범위로,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의 3개 지표에 대해서는 20~50% 범위로, 시장수요 잠재력 부문의 5개 지표에 대해서는 10~30% 범위로 부여하였다.

이러한 평가체계에 의해 분석대상국에 대해 평가지표를 모두 적용하여 도출되는 종합 평가점수는 총 500점으로, 이는 투자유인정책 부문 150점,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 90점, 시장수요 잠재력 부문 60점, 인구규모 100점,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100점으로 구성된다.

4.4 평가지표 적용결과

우리나라 보다 생산비용 절감이 용이한 28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적용한 결과는 표 6과 같다⁹⁾. 우선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투자 유인정책 부문에서는 몽골,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칠레 등이 높게 평가되었고,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에 있어서는 키르키즈,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시장수요 잠재력 부문에서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잠재력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규모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은 러

8) 평가지표별 가중치 설정은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 연구진 및 부문별 전문가의 정성적 의견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수반되지 못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증분석의 구체성을 위해서는 국가별 사회간접자본 및 부존자원 현황을 동시에 고려하고 더 나아가 기업경영 입장에서 의견조사도 필요함.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사전적인 탐색적 조사임을 전제로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관리의 필요성 제시를 개진하고자 함.

9) 미얀마의 경우 평가지표의 수치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됨.

표 6. 주요 분석대상국별 평가지표 적용 결과

순위	국가	지역	부문별 평가점수					최근 3년간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종합 평가 점수
			투자 유인 정책	노동 시장 유연성	시장 수요 잠재력	인구 규모	최근 3년간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1	러시아	유럽	73.1	69.0	34.7	53.8	98.6	345.0	
2	몽골	아시아	86.7	70.6	47.2	10.4	78.6	310.8	
3	말레이시아	아시아	81.3	84.6	58.8	35.8	39.3	308.4	
4	방글라데시	아시아	71.6	66.4	26.4	55.1	49.5	287.5	
5	인도	아시아	77.0	59.0	32.8	76.4	17.6	282.3	
6	중국	아시아	61.9	53.4	77.9	78.1	15.5	281.2	
7	이란	중동	79.3	45.4	34.4	46.4	53.6	280.5	
8	파키스탄	아시아	79.8	56.0	21.4	55.5	35.7	274.2	
9	베트남	아시아	62.7	68.2	63.9	48.4	26.2	268.4	
10	이집트	아프리카	75.0	55.7	31.9	47.8	35.7	265.2	
11	콜롬비아	중남미	68.6	51.8	31.1	41.2	53.6	263.0	
12	카자흐스탄	아시아	78.1	73.0	47.4	29.9	19.8	261.0	
13	가나	아프리카	72.8	64.6	39.0	34.2	35.7	260.7	
14	인도네시아	아시아	65.3	44.4	45.8	59.0	32.3	256.7	
15	우즈베키스탄	아시아	61.7	78.9	37.5	35.9	32.0	254.0	
16	라오스	아시아	57.6	70.8	34.5	19.8	59.5	250.2	
17	태국	아시아	69.4	56.9	54.0	45.7	16.0	249.3	
18	과테말라	중남미	70.8	50.3	24.6	28.4	50.0	244.7	
19	스리랑카	아시아	67.7	62.2	28.9	32.5	35.7	243.1	
20	멕시코	중남미	72.1	39.6	31.9	50.7	22.5	236.2	
21	루마니아	유럽	79.6	43.9	35.3	33.3	17.9	231.2	
22	키르기즈	아시아	73.8	91.6	32.3	18.1	0.0	230.6	
23	칠레	중남미	79.0	39.2	42.3	30.6	11.9	221.7	
24	페루	중남미	71.2	25.7	27.0	36.5	35.7	218.3	
25	캄보디아	아시아	57.1	59.8	40.4	29.2	22.3	215.2	
26	필리핀	아시아	59.2	23.3	30.0	48.9	25.2	201.8	
27	브라질	중남미	25.7	50.3	25.3	57.1	30.1	186.2	

주: 부문별 평가점수는 표 5의 분석대상국 선정기준에 따라 부문별 선정지표에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도출한 후 여기에 세부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였고, 종합평가점수는 5개의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에 부문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함

시아, 몽골, 라오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5개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한 결과, 해외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로 러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등이 도출되었다.

4.5 분석대상국별 전략적 시사점

이상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외에 기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시 예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은 크게 비교우위 입지확보 목

적과 전략적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우위의 입지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저임금·저지가·각종 환경규제 완화 등 생산요소에 대한 비교우위를 활용하기 위한 해외진출 유형으로, 주로 섬유·봉제·식품가공 업종이 해당되며 비교적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동향을 살펴보면,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주로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여건이 보다 우수한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같은 경향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략적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해외 내수시장 개척, 생산네트워크기지 확보를 통한 공정분할, 자원활용을 위한 해외진출 유형으로, 주로 반도체·통신·전자·철강·자동차·가스·원유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확보된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을 위해 안정적인 해외 산업입지가 필요할 수 있으나, 해당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위해 현지 국적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해외진출 목적 중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교우위 입지확보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를 우선적인 진출대상국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에 대한 비교우위 확보 측면에서 보면 5개 평가부문 중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 부문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에 대한 평가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으로 높은 국가는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등이며, 투자유인정책 부문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더 높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해당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은 중간 수준이나 투자유인정책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이란, 루마니아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 중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추세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진출대상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우선, 최근 3년간 우리기업의 제조업 신고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국가(키르기즈,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를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최종적인 전략적 진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산업입지 제공을 위해 산업입지결정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대상국가에 적용하여 국가별 비교우위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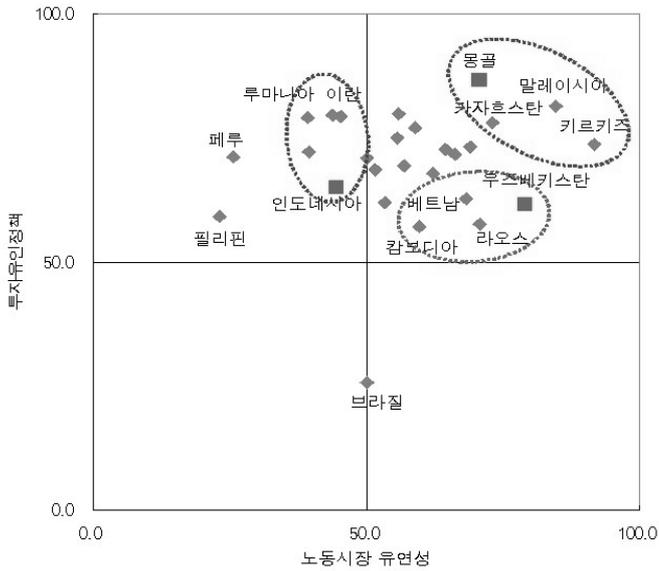


그림 3.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에 의한 국가 유형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에 대해 살펴본 바, 지난 30년 동안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은 신고건수로 약 9만7천 건이며, 해외진출이 본격화된 90년도 중반부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270% 증가해 왔다. 지역별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아시아가 전체의 약 7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북미 지역이 약 20%로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4분기 현재,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모두 128개국이며, 이 중 '80년~2010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분석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1/4분기 현재, 우리 기업이 진출한 128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보다 낮고, 2007년~2010년 동안 현지 법인 신고건수가 10건 이상인 38개 국가를 선별하였고, 이 중 2008~2009년 기준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815달러/월)의 10개 국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28개국이 주요 분석대상국가로 선정되었다.

셋째, 분석대상국가에 대한 비교우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와 기준을 설정하였다. 생산의 국제적 분할(생산네트워크로서의 생산기지) 및 가공무역(중간재의 수입의존과 최종재의 제3국가 수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업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건이 좋고, 저임금의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며, 진출기업의 1차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크게 투자유인정

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인구규모,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넷째, 앞서의 평가지표 및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보다 생산비용 절감이 용이한 28개 분석대상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발생가능한 비교우위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5개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한 결과, 러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등이 전반적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교우위 입지확보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를 살펴본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 부문의 평가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기업경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추세를 분석하고 해외전용공단 조성을 전제로 산업입지적 관점에서 분석대상국가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한 바,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입지 결정과정의 동태적 경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연구로는 드물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 중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논의되었던 산업입지결정변수들을 실제 국가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한 것에 대해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지표를 설계함에 있어 중국을 제외한 타 국가의 입지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세부지표별 가중치 부여과정에서 충분한 실증분석을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미개척 유망지역 해외산업단지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010)” 과제의 성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본 과제의 수행에 도움을 주신 국토교통부 김영태 과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 김영숙 과장님, 토지주택연구원 주정현 연구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 김경애, 김재범(2010), “산업별 차이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5(1): 103~105.
2. 김정한(2012), “내국인의 대외투자와 외국인 대내투자간 성과차이”, 『주간금융브리프』, 21(27): 10~11.
3. 산업연구원(2003), 「지역별 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분석」.
4. 이기동, 황석중(2010), 「산업입지, 환경 그리고 지역경제」, 집문당.

5. 이변송, 김지순(2005), “산업의 지역적 집중이 사업체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3: 210~220.
6. 정의철, 이변송, 조찬호(2005), “우리나라 제조업 집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11: 80~110.
7. 최창규(2004),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10(1): 52.
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1980~2010.
9. Anderson, R., J. Quigley and M. Wihehnsson (2008), “Agglomeration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reativity”, *Regional Science*, 83: 450~463.
10. Caves, R. (2006),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1. Fujita, M. and T. Mori (2005), “Frontiers of the New Economic Geography”, *Papers in Regional Science*, 84(3): 377~405.
12. Glickman, N. and D. P. Woodward (2008),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Pattern and Determinant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11: 137~154.
13. Head, K. and T. Mayor (2004), “Market Potential and Location of Japanese Investment in European Un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4: 959~972.
14. IMF (2009),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
15. ILO, *Global Wage Report 2008~2009*.
16. Kang, S. J. and H. Lee (2007), “The Determinants of Location Choice of South Korean FDI in China”, *Japan and World Economy*, 19: 443~459.
17. Krugman, P. R. (1991), *Geography and trade*, MIT Press, Cambridge.
18. OECD, *Working Conditions Laws 2006~2007*.